

30일 개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포용디자인’ 담는다

29일 오후 6시 비엔날레광장서 개막식

19개국 429명 디자이너·84개 기관 참여

세계·삶·모빌리티·미래 4개 주제관 구성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65일 간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제목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 429명 디자이너와 84개 기관이 참여하며 ‘포용 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열린다.

총감독은 국내 1세대 산업디자인이러자 미국 사바나 예술대학교 최수신 교수가 맡았으며 세계관, 삶관, 모빌리티관, 미래관 등 4개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세계관’은 세계 각국의 포용디자인 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영국 왕립예술대학원의 보행 보조기기 ‘플레이터’,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위기 속 문화적 다리를 표현한 밀라노 공과대학원의 ‘부유하는 등지’ 등 기후 변화 대응, 인권, 문화 다양성 등을 아우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삶관’은 일상생활 속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소개한다.

인권동아리 ‘이끼’의 ‘모두가 바라딘 바다’, 푸

르메재단의 ‘푸르메소셜팜’, 인체공학적 주방도구 ‘옥소 컷그립 감자칼’ 등 생활 속 포용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모빌리티관’은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카이스트(KAIST)무브랩·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슈트 F1 비전 컨셉’, CES 2025 혁신상 수상작 ‘볼륨스퀘어: 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 병원’, 영국 대표 택시 브랜드 ‘LEV C의 휠체어·유모차 친화형 택시’ 등을 소개한다.

‘미래관’은 첨단기술과 디자인이 결합된 미래형 포용 솔루션을 선보인다.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 ‘세 번째 엄지(Third Thumb)’, 고령자 돌봄 로봇 ‘래미(Rami)’,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보조기기 등 미래 사회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부대행사로오는 국제 심포지엄,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가 운영된다. 광주충정역을 포용디자인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 한 ‘광주 도시철도 포용 디자인 프로젝트’의 결과가 모빌리티관에 전시된다.

이번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가 생생하게 전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슨트 투어가 운영된다.

뉴노멀플레이그라운드관에서는 ‘놀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해진 관람 방식이나 규칙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속도와 리듬대로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터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감각A·감각B·빛·소리·자연’ 다섯가지 공간에서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가는 포용디자인의 실천 공간으로 채워졌다.

별도의 카페와 라운지 공간을 배치해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광주비엔날레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포용디자인의 메시지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가치를 넘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포용디자인의 철학이 광주에서 세계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양궁대회 테러 대비 훈련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보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종합훈련이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경찰특공대가 버스에 갇힌 인질 구출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기후변화 대응 ‘AI 어장환경 예보 서비스’ 개발 박차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내 시범서비스

전남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어장환경을 예측해 어민에게 제공하는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는 수온, 염분, pH, 조류, 적조 등 주요 해양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1주일간의 어장 환경을 예측하고 양식어가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양환경 예측 플랫폼

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 2028년까지 총예산 345억원으로 수행되며 연내 전남지역 주요 양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고흥·신안·완도·진도·해남군 등 5개 지자체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해 ▲고해상도 해양환경 예측모델 구축 ▲양식장별 맞춤형 경보시스템 ▲모바일 기반 예보 알림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고수온, 저산소, 적조, 태풍 등 재난성 해양변화에 대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식생물 대량 폐사 예방, 사료 투입량 조절, 긴급 대피 판단 지원 등 실제 양식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양식어업은 수시로 어장환경 예측이 가능하도록 전환돼야 한다”며 “양식어가가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미래 어장환경 예보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서 ‘AI 韓·中 청년포럼’…인재 교류·협력

中 항저우 저장대 AI 인재들 광주 방문

글로벌 기술동향 공유…성장발판 마련

광주시가 중국 항저우 저장대학교 청년 인재들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AI) 한·중 청년포럼’을 열고 AI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차이나센터에서 ‘AI로 연결된 광주와 중국, 청년의 상상력이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광주 AI 한·중 청년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가 중국 항저우 저장대학교 AI 전공자 등을 초청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지역 청년 인재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다.

이에 따라 포럼에는 저장대학교 컴퓨터과학교수대학 양이(Yang Yi) 교수를 비롯해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4명, 학부생 1명 등 중국 측 대표단 7명이 참가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GIST 등 AI 관련 학과 대학생, 기업인 등 30여명이 함께 해양국 청년 간 AI 기술 교류가 이뤄졌다.

포럼은 ▲양이 교수의 ‘튼튼한 기반위에서 최첨단을 선도하다: 저장대학교 AI 인재양성과 중국형 로드맵’ ▲GIST 김준호 교수의 ‘AI가 바꾸는 세상,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의 시선으로 본 AI ▲우리가 상상하는 AI 미래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변은진 기자

道, ‘호남 청년 아카데미’ 7기 교육생 모집

28일까지 18~49세 150여명

전남도는 20일 “‘호남 청년 아카데미’ 7기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민선 8기 공약으로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다. 7기 아카데미는 30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4시간씩, 총 5회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150여명이다. 전남에 거주하는 18~4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센터 누리집(<http://www.jnyouthcenter.kr>)을 통해 신청 받는다. 전남도는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참여 의지와 지원 동기를 종합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29일 청년센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7기 아카데미는 30일 개강식과 청년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2회차 권일용 교수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유형과 예방’ (9월13일) ▲3회차 방송인 노홍철의 ‘평범함을 거부하는 창의적 사고법’ (9월27일) ▲4회차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현장학습 (10월18일) ▲5회차 김지운 박사의 ‘글로벌 정세와 리더십’을 강의 (11월1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남도 청년정책 핵심과제를 주제로 한 분임별 토론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